

향후 5년간 어촌·어항의 미래를 담는다

창조경제 시대의 어촌·어항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워크숍 개최



한국어촌어항협회는 지난 5월 28일 해양수산부, 동·서해어업관리단, 지방자치단체,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어촌어항 관계자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새정부의 정책방향에 맞는 종합적·체계적인 어촌·어항개발 정책 발굴과 투명하고 합리적인 어항정책 수행 방안

구상을 목적으로 개최된 이번 워크숍에서 어촌·어항의 다양한 수요에 대처하고 실질적 어촌소득 창출을 위해 금년에 수립하는 제2차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에 담길 비전과 목표, 기본방향, 실천과제 등이 집중 논의되었다.

박준영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의 인사를 시작으로 배길중 어촌어항과 사무관의 「지방관리어항의 신규사업 발굴」, 이서구 한국어촌어항협회 팀장의 「기존 어촌정책의 개선방향」, 남광훈 한국어촌어항협회 팀장의 「기존 어항정책의 개선방향」, 이승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실장의 「1차 평가 및 2차 어촌어항발전계획 정책방향」, 박상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문연구원의 「어촌어항 신규사업 발굴」, 김호연 백미리 어촌계장의 「어촌체험마을 성공사례」 등 6가지 주제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 기본계획이 산업과 문화의 융·복합 등 창조경제시대에 걸맞은 우리나라 어촌·어항의 중장기 미래상을 제시해야 하는 중요한 계획임을 감안해 일선에서 정책을 직접 수행하는 지자체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검토·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주제발표를 하고 있는 본회 이서구 팀장과 남광훈 팀장



제18회 “바다의 날” 기념 바다 정화활동 전개 어항 내 침적폐기물과 부유쓰레기 제거 및 어선 스크류 무상 점검



한국어촌어항협회는 5월 22일 태안군 모항항에서 지역주민, 바다살리기 국민운동본부 등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바다 정화활동을 실시하였다.

해양수산부와 태안군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관계기관·단체·지역주민 등 민·관 합동으로 모항항 주변의 마을, 해안가 등에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하고, 바다사랑 캠페인을 함께 펼쳤다.

이날 협회는 99톤급 크린오션호를 투입해 어선 입출항을 방해하는 어항 내 수중 침적폐기물과 해상 부유쓰레기를 제거하였고, 재능기부를 통한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모항항내 정박중인 어선을 대상으로 협회 전문 잠수인력을 활용해 스크류 무상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 부활 이후 처음 개최되는 제18회 바다의 날(5.31)을 기념하고 바다쓰레기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협회는 매년 어항청소선 9척을 활용하여 전국 어항에서 연간 3,000톤의 해양쓰레기를 수거, 어항의 수질 개선과 미관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 ▶ 최근 3년간 어항청소물량 : 2655톤('10년), 3445톤('11년), 3802톤('12년)
- ▶ 어항청소 전·후 저질 개선도 12.7%(COD 변화 : 174.79 → 152.68ppm)
 - 어항청소선 어항환경개선효과조사(2012년)

방기혁 한국어촌어항협회 이사장은 “바다 정화활동을 통해 어업인 등 지역민의 참여도를 높임으로써 해양 환경에 대한 인식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관계기관이나 단체 등의 협력을 통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 캠페인 및 홍보를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어선 스크류 무상점검



▲ 항내 쓰레기 수거중인 크린오션호



신개념 형식의 방파제 기술 개발

한국어촌어항협회, ‘방파제용 오펙이 케이슨’ 특허 취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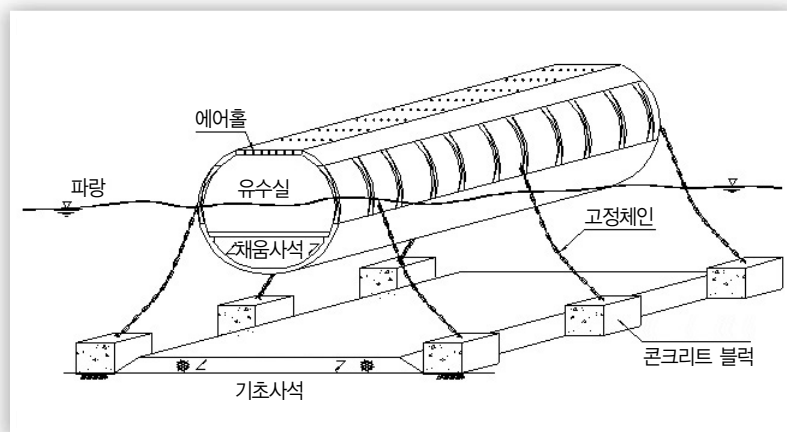
한국어촌어항협회는 최근 특허청으로부터 “방파제용 오펙이 케이슨(TUMBLING CAISSON FOR BREAKWATER, 출원번호 : 1020110007663)” 특허를 취득했다.

방파제는 어항 및 항만의 항내 정온도 확보를 위해 시설하는 외곽시설로 종래에는 자체 중량을 이용해 침입하는 파랑 에너지를 소산시키고 저항하는 기술이 사용되어져 왔다.

금번 특허는 오펙이 원리를 방파제에 적용한 것으로, 파랑 에너지의 일부를 자연스럽게 투과시키고 구조물 자체가 가지는 자체 복원력을 이용하는 자연 순응형 방파제 기술이다. 이 기술은 사석식 방파제에 비해 경제 적이며 시공중 발생하는 해양오염 및 주변 환경의 훼손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술이다.

협회는 향후 실용화 연구 단계를 거쳐 어항 및 항만 현장에 적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산업화 해 나갈 계획 이다. 이번 오펙이 케이슨 방파제를 현장에 적용할 경우 파랑 제어 이외에도 파도에 따라 좌우로 움직이는 놀이공간, 자체 분수 기능을 도입한 친수공간 조성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성래 한국어촌어항협회 어촌어항연구소장은 그동안 축적된 어촌·어항·어장관련 노하우를 기반으로 “방파제용 오펙이 케이슨 이외에도 항내 매몰방지를 위한 기술, 유류오염 사고 등에 대비한 방재시스템, 해 적생물 구제기술 등을 향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오펙이방파제 케이슨 개념도

“놀이공원과 드럼캣 공연이 제일 신났어요!”

한국어촌어항협회, 도서어린이 초청 문화행사 개최



▲ 해양경찰청 방문

한국어촌어항협회는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 해양경찰청과 공동으로 7월 2~5일까지 전남 진도군 조도면 소재 조도초등학교 학생 60명을 초청, ‘도서어린이 초청 문화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도서지역 어린이에게 도시문화 체험 및 현장학습의 장을 제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시키고자 마련되었다.

조도초등학교 어린이들은 4일동안 서울과

인천 경기지역을 방문하여 학습현장 체험, 문화예술 공연관람, 63빌딩 및 놀이공원 방문, 진로관련 특별강의 등 평소에는 할 수 없었던 다양한 문화행사와 체험학습을 즐겼다. 특히 섬에서 볼수 없었던 타악퍼포먼스 공연은 아이들의 환호를 이끌어내었으며, 여러가지 문화체험은 잊지 못할 추억이라고 입을 모았다.

앞으로도 협회는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더 큰 나눔문화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 국립과천과학관 실습



▲ 해경 공기부양선 승선



안심하고 어촌체험을 즐길 수 있는 어촌체험마을 보험 가입 완료

어촌체험마을에서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안전장치 마련



한국어촌어항협회는 어촌체험마을에 대한 보험가입을 지원하여 어촌체험마을 운영에 도움을 주고 있다.

한국어촌어항협회(이사장 방기혁)가 주관하여 2013년 5월 30일부터 가입하게 된 어촌체험마을 보험은 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이 체험 도중 발생하는 사고를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31개소 마을이 가입완료하였으며 최대 2억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진다.

주요 보상 내용으로는 갯벌체험에서부터 선상체험, 바지선낚시 등에서 일어나는 사고를 보상해 주며, 특히

해상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등 어촌체험에 대한 보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였다.

정부는 고액의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덜고 많은 어촌체험마을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험료의 약 50%를 국고로 지원한다.

협회 관계자는 “어촌체험마을 보험은 2012년 개발한 상품으로, 어촌체험마을에서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어촌관광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 어촌체험마을 보험가입 명단

순번	지역		마을명
1	부산	기장	공수마을
2	경기, 인천	화성	국화마을
3			전곡마을
4		안산	선감마을
5	종현마을		
6	강원	양양	남애마을
7		속초	장사마을
8	충북	태안	대야도마을
9	전북	고창	만돌마을
10			하전마을
11		군산	장호마을
12			장자도마을
13	전남	무안	송계마을
14		장흥	수문마을
15		신안	우전마을

순번	지역		마을명
16	전남	신안	청용마을
17		진도	죽립마을
18		고흥	풍류마을
19	경북	울진	구산마을
20			기성마을
21		영덕	차유마을
22		포항	신창2리마을
23	경남	거제	계도마을
24			다대마을
25			이수도마을
26		남해	문항마을
27		창원	고현마을
28	통영	연명마을	
29	제주	제주	구엄마을
30			하도마을
31		서귀포	사계마을